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2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서해평화는
인천도시발전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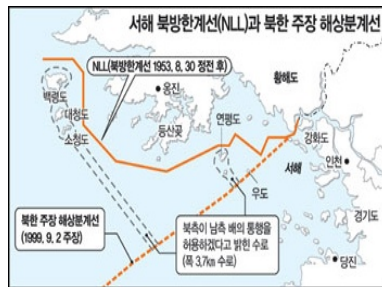


Column

서해 평화와 인천

Interview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박영일 교수와의 만남



IDI 소식



인발연, 시정대응력에
초점 둔 조직개편 구체
화 논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지난 25일 11시 시
청 접견실에서 이사장...

Zoom 人



대청도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해병할머니
서해의 최북단 최전선에
서 군대 생활하는 해병
대원에게 어머니처럼 따
뜻한...

Zoom INcheon



인천시립박물관_인천
의 길, 나의 인생
살이 짙어질수록, 살
아간다는 것이 애가
탈수록, 어린 시절 어
머니가 해...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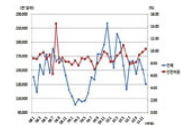
분쟁에서 평화의 중심
으로 떠오르는 타이완
진먼(金門)도
대만의 진먼(金門)도
는 중국의 푸젠성(福
建)과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제일...

IDI 연구



인천·황해도 연계협
력을 위한 기초연구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의 초경계적
(trans-...

인천지표



인천_북한교역 현황
남북한의 교역액 추이
를 살펴보면,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취한 20...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나호 보기**

2011년 2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서 주 석 前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지난 해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두 차례 큰 사건이 있었다.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아마도 남북 분단사에서도 특별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길이 88m에 달하는 1천2백톤급 초계함이 침몰하고 장병 4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연평도 사건에서는 장병 2명과 주민 2명이 희생되고 군부대와 민간인 마을 곳곳이 파괴되었으며 피난민 1천 5백여 명이 큰 고초를 겪었다.

남북분단사의 이례적 사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작년의 두 사건은 1회적이거나 우발적인 일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고 대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 사실 1970년대 땅굴 사건이나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은 DMZ 일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1980년대 아웅산 사태나 KAL 858기 폭파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난 북한의 테러 공작이었다. 그런데,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래 남북의 충돌은 서해 특정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2009년 대청해전에 이어 두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서해 평화는 이제 인천 앞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남북한 관계의 시금석이라고 할 만하다. 사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전국 인구나 경제 생산의 절반 가량 차지하는 수도권을 서쪽에서 에워싸고 있는 국토의 중핵 지역이다. 또 이 지역은 우리 수도권과 북한의 황해남도가 마주하고 있고 중국의 동해안과도 가까워 장차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될 경우 경제나 교통 면에서 동북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해류가 교차할뿐더러 수심이 얕으면서도 물이 깨끗하고 특이한 도서 지형을 갖고 있어 수산업 및 관광 기지로서도 잠재력이 크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지역이 안보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남북관계가 일정하게 진전되기도 하고 쌍방의 군사력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힐 만큼 모두 강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만 심각한 충돌 사태가 종종 일어나는 것일까? 서해가 남북 군사력이 직접, 그리고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되었고 그만큼 긴장도 높아진 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을 둘러싼 논란이다.

NLL 설정과 북한의 뒤늦은 부인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으로 서해에는 서해 5도와 북한측 육지와의 중간선에 연하는 11개의 좌표를 연결하고 있고 동해에는 군사분계선과 동일 위도의 직선으로 되어 있다. 당초 NLL은 같은 해 7월 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에서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설정하고 해상 관할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군측 함정 및 항공기의 북상 항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정전협정에 상대방에 대한 해상봉쇄를 할 수 없게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당시로는 공산측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유엔군측의 북상 한계를 제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선이 설정될 당시 북한은 변변한 해군 전력도 없었고 그 결과 이 선을 넘어올 수도 없었다. 1955년 북한 내각이 12해리 영해를 선포하면서 이 일대를 모두 자신들의 영해로 간주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지켜낼 실력은 여전히 없었다. 물론 북한의 12해리 영해 주장은 서해 5도를 포위하고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서 역시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은 NLL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해군력이 재건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부터 이 일대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73년 12월 NLL을 공식 부인하고 이 일대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에서 우리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공격, 어선 납치를 확대했다. 심각한 분란이 이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시기에 치명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남북은 1990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해 나가지만 해상불가침 구역은 기존에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양측의 기존 확보수역이 잠정 용인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기본합의서 이행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고 급기야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그 이후 심각한 군사 충돌로까지 나아가게 됐다.

서해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은 위험한 안보 위기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를 극복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제1차 연평해전 직후 한동안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이 열려 충돌 재발을 막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그 뒤 북한은 서해 5도 이남까지 자신들의 관할수역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발표하여 양측의 입장차가 더 커졌으나,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었다.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뒤 집권한 노무현 전대통령은 서해에서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그의 지시로 열린 2004년 6월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에 합의하여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함정간 교신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군사적 대치를 줄이고 상호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구상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문제를 두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4 선언에는 서해 해상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해주특구의 설치,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 등이 망라되어 있다.

2007년 11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서해특별지대추진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12월 서해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해주 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1월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남북총리회담 직후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의에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서해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은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각각 협의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그 뒤 이와 같은 후속조치는 모두 중단됐다.

서해 평화는 인천 발전의 필요 조건

서해특별지대 방안은 수십 년 묵은 서해상 긴장과 갈등, 최근 잇따라 일어난 군사 충돌의 경험을 털어내고 이를 평화와 번영, 협력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발상의 전환의 결과이다. 또 이는 북한군 밀집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함으로써 군사적 완충지역을 확대하고 장차 북한 체제를 희생시켜 민족경제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기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해주~개성~인천을 잇는 삼각 경제지구로 이어져 남쪽에만 치우쳐 있는 수도권 서부의 시야를 넓히는 균형 발전의 계기도 될 것이다.

서해특별지대 추진은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항과 강화도, 옹진군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성공시 직접적인 수혜지대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인천항은 해주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향후 해주항 개발 및 경제특구 조성 단계에서부터 많은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하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강화도가 핵심 거점지역이 될 것이며, 옹진군은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따른 어업상 이익과 더불어 전반적인 긴장완화시 관광수입 증대도 충분히 예상된다.

서해특별지대 방안으로 자칫 NLL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NLL은 우리의 기존 관할구역으로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향후 여건이 당으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온 대로 경계선 문제에 관해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다. 우리 군이 계속해서 NLL을 계속해서 확고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서해 평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때 대한민국과 인천의 발전이 함께 도모될 수 있다. 서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의 집약으로서 서해특별지대 방안의 재추진을 위한 심층적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해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두 차례 큰 사변이 있었다.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아마도 남북 분단사에서도 특별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길이 88m에 달하는 1천2백톤급 초계함이 침몰하고 장병 4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연평도 사건에서는 장병 2명과 주민 2명이 희생되고 군부대와 민간인 마을 곳곳이 파괴되었으며 피난민 1천 5백여 명이 큰 고초를 겪었다.

인천도시발전의 전제는 서해 평화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도시발전의 전제는 서해 평화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박영일 교수는 "한반도 중심에 있는 인천은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이 도시 발전에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강조한다. 평화가 없다면 해양도시인 인천의 앞 바다는 물론, 하늘도 막힐 것이고, 그렇다면 인천의 발전은 없다는 것이다.

대북협력지원과 평화도시 인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겨레하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에게 인천의 발전에 있어 분단과 냉전이 미친 영향, 냉전와해와 더불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시작한 인천의 도시발전에 대해 듣는다.

Q 교수님께서 남북분단과 냉전체제의 영향이 인천의 과거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십니다. 우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관문으로 출범하여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인구 280만이 정주하는 거대한 지역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해방 전에는 비록 침략 외세가 주도하였지만 동북아 정치경제활동의 주된 무대였고, 중국, 일본,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물류, 해운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냉전·분단체제 하에서 서해 바다가 얼어붙었고 서해의 중심무역항이었던 인천은 중국 대륙과 연계로를 잃고 무역 기능을 상실하고

남북대결의 최전방에서 해안초소로 변모했습니다. 인천 시민의 뇌리에서 바다가 지워지게 된 것이죠. 해양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한 인천은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의 입해공업단지,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연자원이 희소하여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할 요소부존상태에서 인천은 입해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주로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소재산업이 입지하고, 바다를 메우고 땅을 파헤쳐 산업도로를 뚫고 공장을 짓고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외연적으로 급격하게 확장되었습니다.

Q 가장 큰 요인이 북쪽과 서쪽이 막혀버린 채 해양진출의 기회를 상실한 점이군요.

인천이 과거 서울의 위성공업단지로 팽창한 결과, 인천에는 주택, 교통, 교육, 의료·보건, 문화 등 생활관련 공공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외연적 확장만이 있었기에 도시기능이 집중된 도심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은 삶의 질을 도외시키고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온 한국경제성장의 모순이 집약된 도시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Q 위성도시였지만 그래도 산업화는 활성화되지 않았나요?

산업구조에 있어서 소재산업의 특징은 대규모장치산업으로 부가가치율이나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원자재·에너지 투입비율이 높고 환경오염과 교통유발효과가 커서 대도시에 입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업구조로 인하여 인천항도 자연스럽게 석탄, 목재, 모래, 고철, 광물, 원유 등 저부가가치 벌크화물 수입항으로 전락했으며, 도시기반 정비가 뒤따르지 못한채 산업생산과 노동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박영일 교수

구하는 청장년층 미숙련 노동자나 서울에서 생활근거지를 확보하지 못해 떠밀려온 저소득계층이었고, 공업 생산의 부산물인 공해, 교통 혼잡, 자연경관 파괴,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은 인천에 떨어져 인천시민이 부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Q 산업화는 활성화 되었지만, 시민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인천의 사회적 환경이 미비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도시의 매력이란 무엇입니까?

도시의 매력은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질을 규정하는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총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도시매력의 정도는 시민이 생존하기 위해 생활물자를 획득하는 경제적 매력과 인간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화적 매력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매력은 생계수단을 획득하는 매력으로 어디까지나 수단적인 매력이고, 문화적 매력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적 매력이라는 점이다. 이 기준에 비추면, 인천은 수단적인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해 어느 정도 매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생활환경이나 문화·여가활동, 사회·정치참여기회, 자연경관 등 생활·문화적 매력은 영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표 1〉 참조).

〈표 1〉 도시매력의 내용

I. 경제적 매력 (수단적 매력)	- 개인: 취업·개업 등 소득가득기회, 작업환경 - 기업: 사업성공기회(산업입지 조건, 자본·노동·기술·원자재 등 생산요소 부존상태, 산업기반사회간접자본, 산업지원행정체제)	
	생활적 매력	- 주거생활(상하수도, 전기·가스, 통학·통근, 쓰레기 처리) - 생활편의(출산·육아, 안전, 교통, 시장, 병원, 위험·험오시설)
	문화적 매력	- 문화·여가생활(문화활동의 일상적 체험 기회, 여가스포츠 시설, 공원·녹지, 휴식 공간) - 교육활동(교육시설, 교육여건) - 유행결합(상품·생활정보의 접근성)
	사회적 매력	- 사교기회(친목·상조) - 사회참여기회(사회봉사, 시민조직) - 정치참여기회(사회정의의 평화, 인간존엄, 행정의 투명성, 지방권력의 감시)
II. 문화적 매력 (목적적 매력)	자연적 매력	- 자연경관, 녹지의 보전 - 양질의 대기·수질

Q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인천의 외적 조건이 나아졌지요?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현재의 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1990년대 이후 외적으로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화해·협력이 대결구도를 대체하면서 동북아의 상품, 사람, 돈, 기술, 정보가 인천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냉전주도세력의 영향력이 약화하여 인천의 경제력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인천의 모습이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외의 공업단지에서 동북아의 교통과 물류가 집결되는 국제도시로,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도시기능을 균형 있게 갖춘 자족도시로 다이내믹한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서해가 평화의 바다로 되살아나고 해양진출의 기회가 회복된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로막았던 철조망을 철거하고 연안도시와 임해경관을 연계하여 시민이 일상적인 삶속에서 바다가 지닌 낭만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확충된 공업기반 위에 인천항이 확장되고 인천공항이 들어섰습니다. 경제활동이 다양화되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시장권(경제 혹은 시장문화권), 지역의 정치권력이 형성·동원되는 주체적인 자치단위(정치문화권), 시민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단위(생활문화권)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주택, 교통 등 생활관련 공공재의 공급이 확충되고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요.

산업구조도 저부가가치 소재산업에서 지식·기술집약적인 조립가공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숙련노동·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도 번성하기 시작했다. 국제무역, 물류 기능이 확충되면서 해운시장이 형성되고 유통·금융·각종 기업서비스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도시기능의 집적지로서 도심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인천시민이 인천에 애착과 긍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이 인천 도시발전에 불가결한 필수조건임을 입증합니다.

Q 동북아의 평화와 서해평화는 인천 도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이신데, 특히 현상황에서는 남북협력이 중요하겠군요. 향후 인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분단 반세기만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 전개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인천의 도시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인천이 남북교류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인천에서 남북한이 함께 우리민족대회를 개최했고,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에서는 남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어울려 신명 나는 한 때를 보냈습니다. 2007년 10·4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남북협력사업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을 잇는 한반도의 심장으로서 인천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인천의 미래를 기약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확산시키는 발원지가 되어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천의 꿈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남북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대결구도로 후퇴하고 한미일 3국 동맹이 강화되고 대북·대중관계의 파탄으로 신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바다로 되살아나던 서해가 다시 대결과 죽음의 바다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인천이 다시 폭격을 당하고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이야말로 남북협력과 민족통일,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영의 원점이자 시발점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역으로 동북아의 평화, 민족의 통일 없이는 인천의 발전이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280만 인천시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남북 화해·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국내외 모든 세력에 맞서야 할 시기입니다. 인천이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를 지향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천시민의 역사적 사명이고 밝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담 : 강 승 호(동북아·물류연구실 연구위원)
■ 기록 : 장 순 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박영일 교수는 "한반도 중심에 있는 인천은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이 도시 발전에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강조한다. 평화가 없다면 해양도시인 인천의 앞 바다는 물론, 하늘도 막힐 것이고, 그렇다면 인천의 발전은 없다는 것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2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발연, 시정대응력에 초점 둔 조직개편 구체화 논의

■ 우리 연구원 정기이사회 개최

‘시정대응력에 초점 둔 조직개편 구체화 논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5일 11시 시청 접견실에서 이사장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주재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부의안건은 ‘연구원 운영개선 TF 운영성과 및 건의사항’, ‘운영규정 개정(안)’, ‘2010년도 수지결산(안)’ 등이었다. 첫 번째 안건인 ‘연구원 운영개선 TF 운영성과 및 건의사항’은 지난 2011. 1. 7(금) ~ 2. 8(화)일까지 5차에 걸친 연구원 운영개선 TF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①연구원의 비전을 “세계도시 인천을 견인하는 창조적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②본부 1처(기획본부, 정책연구본부, 사무처)체제의 조직개편을 건의하였으며, ③2015년까지 500억원의 기금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 노력하여야 하며, ④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 직원의 책임용 규정 강화 등 연구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비롯하여, ⑤지역사회 및 시 정책부서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운영규정 개정(안)’은 ①연구심의평가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신설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개정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②시정수요의 수시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기획본부에는 시정 전영역을 고루 커버할 수 있도록 현안분석팀/기획행정팀/문화복지팀/산업경제팀/건설교통팀 등을 두고, 정책연구실에는 도시경영연구부/도시기반연구부/연구기획팀을 두며, 사무처에는 경영관리팀/행정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기퇴직 근거 신설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회계구분에 수탁용역특별회계 신설, 2010년도 수지결산(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원내·외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직개편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1본부 1실 1처(기획본부, 정책연구실,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연구원의 운영상황과 시정대응력 향상을 절절히 고려한 방안이라는 평가이다.

■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연구원 현지 시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우리 연구원 현지 시찰에 나섰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연구원 현황 및 2011년도 사업운영 기본방향과 현안상황을 보고 받고, 시정연구협력센터 등을 시찰했다.



■ 해외교류기관_기타큐슈시립대학 아다 학장 내원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에 지난 1월 26-27일 양일간 해외교류기관인 기타큐슈시립대학의 아다 학장이 내원했다. 아다 학장은 퇴임 전 교류기관 순방 일정으로 연구원을 찾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당부했다. 한편 아다학장은 순방 기간 동안 국민대학교와 협정 조인식을 갖고, 인천 캠퍼트스마트 시티 홍보관 등 인천 시내를 시찰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5일 11시 시청 접견실에서 이사장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주재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부의안건은 ‘연구원 운영개선 TF 운영성과 및 건의사항’, ‘운영규정 개정(안)’, ‘2010년도 수지결산(안)’ 등이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대청도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 해병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약초를 통한 섬주민의 건강 파수꾼
사랑의 향기를 배달하는 전령 ”

대청도 해병의 영원한 사랑, 해병할머니



해병 대원들과 함께 한 해병할머니

서해의 최북단 최전선에서 군대생활하는 해병 대원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한 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해병할머니(이선비 할머니, 86세, 인천광역시 용진군 대청면)이시다. 대청도 모래울(사탄동) 해병의 작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해병대원들의 군복 수선, 우편 및 택배 물품 관리, 각종 생필품 제공은 물론이고, 따뜻한 밥, 구수한 누룽지와 김치, 각종 해산물 등을 대가나 보상으로 제공해 주시고 친손자처럼 보살펴 주셨다. 해병 대원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30년이 넘게 계속되었고 절해의 고도에 배치되어 고생하는 해병 대원들을 친혈육처럼 진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에 자연스럽게 “해병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해병대원들은 해병할머니가 항상 고향에 있는 할머니가 생각나게끔 잘해 주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할머니보다 오히려 더 진짜 친할머니로 생각될 정도라고 말한다. 해병할머니는 이곳의 해병대원에게는 마음의 휴식처와 같은 분이신 것이다. 할머니의 이와 같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해병대원들은 도배나 페인트칠로 집을 단장하기도 하고, “해병할머니 집”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달아드리기도 하였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베풀신 사랑이 깊고 고마워서 해병대 사령관이나 예하 부대장들이 대청도를 방문할 때면 첫 번째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해병할머니를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의 재산목록 1호는 이곳을 거쳐 간 해병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방 한쪽 벽면에는 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액자, 표창장, 감사패 등으로 빼곡하게 차 있다. 대청도 해병부대 역사의 산증인이신 할머니는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전역한 대원들까지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리워한다. 대청도 해병의 혼이 담긴 “해병할머니 집”은 대청도를 방문하는 모든 해병들에게는 꼭 다녀가는 필수코스이며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대청도의 민간요법 연구와 실천에 헌신한 해병할머니

황해도 해주에서 14살에 시집은 후 대청도에 살면서 80평생 가까이 민간 한약치료 연구에 헌신하였다. 100가지 이상의 약초에 대해 알고, 또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약초전문가이다. 아무 대가도 없이 섬 주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약초를 제공하셨다. 그 공적을 보존하고 한약 처방 내용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2006년 이 곳에 근무했던 해경 이종석 경관님께서 기록 정리하여 액자에 담아 주셨다. 이 자료에는 병명 50여 종류, 약초 100여종, 그에 따른 각각의 처방요령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섬지역의 민간요법을 연구하는 귀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대청도의 특산물로 인정받는 “대청도 약술”의 제조자가 바로 해병할머니이시다. 청정지역인 대청도의 산과 들에서 직접 채취한 느릅나무,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더덕 등 19가지 약초로 빚어 숙성시켜 만든 것이 약술이다. 이 약술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면 모든 병에 효험을 얻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로 통한다. 해병할머니는 이런 귀한 약술을 돈도 받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뜻 내어 주셨다.

대청도 해병할머니의 한약 연구 정리 자료

병명 대청도해병대할머니한약연구

병명	약초	처방	효과
1. 위장장애	1. 위산 과다	1. 위산 과다	1. 위산 과다
2. 위산 과다	2. 위산 과다	2. 위산 과다	2. 위산 과다
3. 위산 과다	3. 위산 과다	3. 위산 과다	3. 위산 과다
4. 위산 과다	4. 위산 과다	4. 위산 과다	4. 위산 과다
5. 위산 과다	5. 위산 과다	5. 위산 과다	5. 위산 과다
6. 위산 과다	6. 위산 과다	6. 위산 과다	6. 위산 과다
7. 위산 과다	7. 위산 과다	7. 위산 과다	7. 위산 과다
8. 위산 과다	8. 위산 과다	8. 위산 과다	8. 위산 과다
9. 위산 과다	9. 위산 과다	9. 위산 과다	9. 위산 과다
10. 위산 과다	10. 위산 과다	10. 위산 과다	10. 위산 과다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손길을 지니신 사랑의 전령이신 것이다.

대청도 관광명소 “해병할머니 집”

대청도에는 공용버스가 1대 있다. 1일 8회 섬을 일주하며 운행한다. 사탄동 정류장이름이 바로 “해병할머니 집”이다. “해병할머니 집”은 대청도의 관광명소의 하나이다. 이곳의 유래를 듣다보면 해병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그리고 해병할머니의 “대청도 약속”도 또 하나의 신선함을 제공한다. 이 약속 한 모금에는 청정지역 대청도의 모든 약초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해병할머니 집”은 정말로 볼품없는 구멍가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곳에 담긴 이야기가 좋고, 약술이 좋고, 인심이 좋고, 사람이 좋다. 마침 “해병할머니 집” 앞 모래를 삼거리에는 지붕달린 커다란 대청마루가 있어 잠깐 쉬어가면서 약술과 대청도 특유의 산초 잎을 넣고 담근 아삭아삭한 배추김치, 또 기회가 된다면 손바닥 크기의 우렁구이나 팔랭이 말린 것이 안주로 등장할 수도 있어 좋다. 대청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섬을 일주하거나,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의례히 해병할머니 가게를 들려 인사드리고 약술을 사서 기념주로 마신다. 또 주변사람들에게 선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필자도 늘 집에 약술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거나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할 때면 특별주로 사용하였다.



사람의 향기를 지니신 해병할머니 체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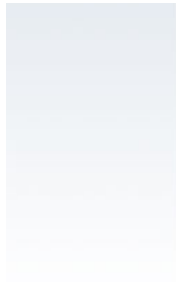


필자가 해병할머니를 만난 것은 특기할 기회였다. 섬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 ‘쌍끌이’를 체험하고 나서 계절이 조금 이르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가 사시나무 뿔뿔 추위에 고생하고 있을 때이다. 해병할머니께서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시고, 젖은 옷 대신 입을 옷가지를 여러 벌 챙겨 주셨다. 그 때 주신 옷가지는

대청도 3년 근무하는 동안 소중하게 입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손길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이었다. 또 한 번의 해병할머니와에 대한 체험은 필자가 성당이 다니면서 서클버스로 모셔드릴 때면, 각종 해산물을 손질해 놓은 것을 챙겨주셨고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주려고 주섬 주섬 챙기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섬에 온지 얼마 되지 않고 해산물을 접하기 힘든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때 해병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정은 대청도를 떠나도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마음으로 남아 있다. 해병할머니는 사람의 향기를 지니신 분이였다. 본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분이였다.

해병할머니의 배품과 섬김의 정신은 영원하라!

해병할머니는 현재 86세로 2008년 후반기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인천에 있는 자식들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오셨고, 결국 오랜 노환으로 인하여 2010년 전반기부터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건강만 허락하시면, 대청도에서 생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 백령도 해병부대 사령부에서는 해병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해병할머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백령도 전시관으로 가져갔다. 해병부대원이 만들어 준 “해병할머니 집” 간판, 할머니 방에 있던 사진들과 표창장, 각종 자료 등 해병부대는 영원히 해병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해병할머니가 베풀어주신 사랑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장하고 전파되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배품과 섬김의 성숙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해병할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하여도 “해병할머니 집”이 폐쇄되지 않고, 해병할머니의 사랑의 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해병할머니의 “대청도 약속”도 그 비법이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해병할머니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노년의 삶을 기원 드린다.



필자가 제작한 '대청도사이버탐방'(<http://daechungdo.idm.hi.kr/>)에는 대청도의 역사, 건설, 문화유적 및 명소, 관련 동영상, 안내지도 등 기타 다양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으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의 최북단 최전선에서 군대 생활하는 해병 대원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한 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해병할머니(이선비 할머니, 86세,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이시다. 대청도 모래올(사탄동)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해병 대원들의 군복 수선, 우편 및 택배 물품 관리, 각종 생필품 제공은 물론이고, 따뜻한 밥, 구수한 누룽지와 김치, 각종 해산물 등을 대가나 보상 없이 제공해 주시고 친손자처럼 보살펴 주셨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의 길, 나의 인생

“

삶이 절실할수록,

살아간다는 것이 애가 탈수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밥 한 끼를 찾는 원초적 갈구.

당신께서 걸어왔고, 우리가 가고 있고, 자식들이 갈 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입체교차로, 박물관은 길이다.

길에게 길을 묻고자 합니다.

박물관 기획팀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일 년 동안 걷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건,

즐겁게 놀고 맛나게 먹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요.

박물관 옆 맛집을 찾아 맛과 사연을 버무리는 것도 빼 놓지 않을 것을,

웹진 편집진을 대표하여 석종수, 조승현, 장순지가 약속드립니다.

”

출습니다. 올 겨울은 104년만의 추위라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영상기온을 유지한 이틀 동안을 합쳐봤자 불과 44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내복을 껴입고, 장갑과 목도리를 칭칭 동여매는 호들갑을 세상에 대한 순응으로 어여뵈 여기는 것이 맞을 성 싶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더 추운 걸까?”

며칠 전 점심시간이었죠.

따뜻한 점심을 한껏 먹었으니 에너지가 충만할 만도 하건만 그 친구는 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그 말이 괜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건 저 또한 그랬던가 봅니다. 세상이 참 춥네요.

청량산 인천시립박물관에 오르다

그런 마음을 품은 채 청량산을 올라 인천시립박물관에 갔습니다. 첫 눈에 들어오는 건 처마처럼 삐죽 튀어나온 철과 조화를 이룬 모던한 대리석 건물, 1991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_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이다

야외공연이 가능한 널찍한 마당과 붉은 아치형 계단, 그 가운데는 인천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1905~1944)의 동상이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더군요. 두리번 거리다 우현의 오른쪽 아래에

서 있는 돌비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령공양탑(寢靈供養塔). 인간에 의해 생을 다하지 못한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고 누에 농사가 잘되길 기원하면서 세운 탑. 1926년 서구 공촌동 길가에 서 있던 것이라는 설명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희생된 300만 마리의 소와 돼지의 영혼을 생각하며 비석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돌도가에 박힌 QR코드를 읽는다

1946년 4월 1일. 인천시립박물관이 중구 송학동 1가 1번지에서 개관을 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현대문물의 원조집산지라고 할 만하죠(대한민국 최초로 모아놓은 박물관은 여러분과 다음기회에 가보기로 약속합니다). 석남 이경성(1919-2009)이 초대 박물관장입니다. 이 분은 한국의 1세대 미술평론가이자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지닌 사람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작은전시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박물관에서 가장 적은 공간이지만 가장 큰 사랑이 머물러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랑, 사람, 가족을 주제로 어린 외손녀와 함께 만든 그림들이 작은 벽면에 촘촘히 걸려있네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석남은 세상을 떠났으나 그가 남긴 뜻은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따뜻한 정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손녀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고.



잠령공양탑_누에의 영혼을 달래는
조상들의 따뜻함이 배어있다

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인천이 겪어온 역사의 궤적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산이 백제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미추홀이며, 고려시대 7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했다는 칠대어항(七代御鄕), 조선시대에는 부평이 인천보다 행정단위의 격이 높았다는 사실 등등. 서예, 공예와 같은 주제공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관람하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전시물마다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전시장에 있는 설명문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동영상까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소방차 포토존_아이들에게 강추

아이들이 좋아할 빨간 소방차도 있습니다. 개항 이후 도입되어 대한제국을 거쳐 해방이 되고도 쓰였다고 하네요. 특별히 이곳은 포토존으로 꾸며 놓아 기념사진을 찍기에 딱입니다. 포토존은 전시관 곳곳에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 느끼는 흥취는 밖에서도 계속된다



박물관 3층에 있는 [해넘이방]은 관광객을 위한 친절한 배려. 송도와 인천대교를 바라보며 휴식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입니다.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꼭 한 번 볼 만할 듯합니다. 박물관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임을 참조하시길. 인천이 가진 특별한 점은 중국과 인연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요. 바다를 바라보는 박물관 마당에는 중국의 송, 원, 명나라 시대의 철종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한국의 종들과 가장 큰 차이는 종 아래가 반반하지 않고 포물선 모양으로

종을 보고 청량산 봉우리에 있는 전망대를 오르면 인천대교가 아주 조금할 정도로 넓은 바다전경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산을 내려와서 박물관 곁에 붙어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보는 것 또한 박물관 발품을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이겠죠. 어느덧 한나절이 다 갈 터이지만 2011년 길을 가는 여러분께 인천시립박물관이 한 조각 마음의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작은 욕심을 부려보았습니다. 다음 달은 따뜻한 봄향기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환절기 건강하십시오.

글 조승현 연구위원 사진 석중수 연구위원

송도꽃게거리內 충남 서산집

‘단호박이 품은 꽃게’



차고 시린 겨울,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찬찬히 둘러보았다면,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건 자연스런 이치(?)와도 같을 것. 멀리도 필요없이 아주 가까이에서 송도 꽃게거리를 만날 수 있다. 그 중에 찾은 집은 ‘충남 서산집’. 통상 꽃게찜이라고 하면 3월~6월까지를 말하지만, 겨울 한복판에서 느끼는 꽃게맛도 궁금해진다.

냄비 가득, 싱싱한 푸른 썩갯들 아래로 위풍당당한 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란 단호박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다. 점차 보글보글 끓어가는 꽃게탕 안의 썩갯들이 숨죽을 무렵, 툭툭해 볶는 게 한 마리를 집어본다. 알이 그득하다. 알은 고소하고 하얀 속살은 달고 부드러워. 게는 좋아해도, 발라 먹는 고단함과 수고스러움에 비해 먹을 것이 없다는 사람들도 보람찰 만큼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서 젓가락으로 쫍쫍 빼내먹는 맛도, 한움큼 입으로 배어물어 먹는 맛도 일품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 집, 꽃게탕의 묘미는 국물맛! 일반적인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만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충남 서산집’의 꽃게탕을 맛보라고 권하고 싶다. 단호박이 익기 전의 개운함과 잘 익은 후의 달큰함, 그리고 푹 익고 난 뒤의 구수함까지, 단호박이 품은 꽃게탕의 ‘삼단국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철은 아니지만 단호박의 진한 풍미가 살아 숨쉬는 꽃게탕으로, 겨울철 얼어붙은 미각을 깨워보자.



글 장순지
사진 석중수 연구위원

삶이 절실할수록, 살아간다는 것이 애가 탈수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밥 한 끼를 찾는 원초적 갈구. 당신께서 걸어왔고, 우리가 가고 있고, 자식들이 갈 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입체교차로, 박물관은 길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분쟁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타이완 진먼(金門)도

동북아·물류연구실 장운정 연구위원

분쟁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타이완 진먼(金門)도

대만의 진먼(金門)도는 중국의 푸젠성(福建)과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해 양안간 군사적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분쟁지역으로 대만인도 진먼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대표적 분쟁지역이다. 그러나, 푸젠성의 샤먼 경제특구와 대만기업투자구에 대한 대만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는 등 정치적 긴장 완화와 함께 대만과 중국간 경제적 협력관계가 밀접해 지고, 미사일 개발로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도가 저하되면서 진먼섬에 주둔하던 대만 병력이 10만에서 1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진먼과 대륙과의 직항 개설과 직접 무역을 허가하는 소삼통이 시행되면서, 상호 방문과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되자 진먼은 이제 대만과 중국 양안의 평화 중심으로 떠오르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대만과 중국의 최전선 진먼도



진먼도는 면적 153km²(진먼 본섬 135km²), 인구는 약 7만 명(2005년)으로 중국의 샤먼시(廈門市)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다. 주룽강(九龍江) 하구와 샤먼 만(廈門灣) 입구를 바라보는 다진먼섬(大金門島), 샤오진먼섬(小金門島) 및 다단섬(大膽島), 일단섬(二膽島) 등 1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샤먼 지역과는 제일 가까운 섬이 2.1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다.

진먼도의 산업은 관광과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산업중에서도 '진먼 고량주'는 전체 대만 고량주시장의 75%를 차지하는 특산품으로 진먼도의

지주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식품 가공업과 도자기 산업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 중국의 포격과 진먼도의 요새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으로 나뉘어 진 후 1958년 중국의 포격으로 진먼도는 대만의 대륙 반공(反共) 기지가 되었다. 1958년 8월 시작된 포격은 1979년까지 21년간 정기적으로 계속되었다. 이에 진먼은 대만의 對대륙 최전방 지역으로, 마주섬과 함께 본토수복의 전진기지가 되어, 섬 자체가 요새화되어, 섬 전체가 총 10km의 지하통로로 연결되었고, 지하에 주민 4만여 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방어시설, 지하 비행장 등을 갖추게 되었다. 진먼도는 대만 본토가 1987년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까지 군사위원회에 의한 계엄통치가 계속되었다.

■ '리도(離島)건설조례' 제정과 평화경착

대만정부는 2000년 4월 5일 "리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를 제정하여 그동안 군사 제한 지역으로 개발은 물론 대만인의 출입조차 어려웠던 진먼도 등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기반을



자료: 진먼현정부 홈페이지

마련하게 되고, 동 법의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먼섬의 평화정착과 함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지되어 있던 중국인의 진먼 방문과 상업행위를 허가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연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던 양 지역의 상호교류를 합법화 하고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만은 '불접촉 · 불담판 · 불간섭'의 3불정책을 완화하여 1987년 7월부터 친족 방문을 허용하며 교류를 시작하였고, 2001년 진먼지역을 중심으로한 소삼통 정책을 시작으로 양안간 개방을 제한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소삼통 정책은 "리도건설조례"를 시행 근거 삼고 있으며 대만의 진먼, 마주, 평후 지역과 중국의 샤먼지역간 통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양 지역간에 직접적인 인적, 물적 왕래와 상업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소삼통을 통해 대만은 중국과의 무력마찰과 정치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전면적인 삼통에 앞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삼통 정책 실시 이후 해마다 항운왕래와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가, 2010년 양 지역의 항운왕래 수는 8,841회에 달했으며, 방문객 수는 63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대륙인의 경우 단체관광을 통한 입국만이 가능해 대만인의 중국 방문보다는 그 수가 적지만, 중국인의 개인 방문 자유화가 양안간에 논의되고 있어 방문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진먼-샤먼 연계 인프라 계획



자료 : 홍콩 문화보, 2008년 4월 18일

인적 · 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중국의 샤먼과 대만의 진먼 사이에 교량을 통한 연육계획이 진먼현 정부에 의해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도 푸젠성을 중심으로한 '서안해협경제구'건설을 위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 대교 건설이 현실화 되면 진먼과 샤먼을 약 8.6km의 다리를 통해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먼도의 용수 공급을 위해 푸젠성과 진먼 사이의 해저 용수공급 파이프를 건설하는 등 양 지역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건설 계획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외 푸젠성과 대만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계획도 구상 중으로, 이 계획은 현재 3개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터널 건설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의 푸젠성과 대만 본섬을 최단 125km(북부노선)에서 최장 207km(남부노선)의 터널을 통해 연결하게 된다.

■ 평화의 상징으로 활력을 되찾아가는 진먼도

대만은 2009년 진먼을 분쟁이 아닌 평화 정착의 중심지로서 국제관광 휴양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마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맞추어 진먼은 '제2기 리도중합건설실시방안'과 '진먼 각 부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문에 걸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진먼도는 진먼의 포지셔닝을 지역과



자료 : 진먼현정부 홈페이지

산업으로 나누어 발전전략을 수립, 먼저 지역적으로는 대만과 중국의 상호 신뢰 협력을 위한 선행시범지역으로써 상생의 발전모델을 개발하는데 포지셔닝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적으로는 관광산업을 발전축으로 하여, 진먼 특색의 경쟁우위를 살리고 연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포지셔닝을 두고, 진먼을 관광휴양섬으로 개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먼도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민난(閩南)지방 고유의 문화, 그리고 양안 분쟁의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과 해양 및 군사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서, 대만의 선진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대만인은 물론 중국 대륙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휴양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만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중국과 가깝게 인접한 지정학적 우위를 살려, 홍콩과 같은 면세 쇼핑 중심 및 변경무역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면서, '진먼대학'의 설립과 함께 대만 본토 유명 대학과 중국대학의 분교 또는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진먼주민과 중국 대륙 주민에게 고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조성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1. 台灣金門縣政府, 二期離島綜合建設實施方案
2. 台灣金門縣政府, 金門個部門發展計劃
3. 장윤정(2008), 홍콩·대만·중국의 상호 접경지역 협력사례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4. 진먼정부 홈페이지 : <http://www.kinmen.gov.tw>
5. '대-중 분쟁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진먼도' (인차이나브리프 188호),

인천발전연구원(<http://hanzhong.idi.re.kr>)

대만의 진먼(金門)도는 중국의 푸젠성(福建)과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해 양안간 군사적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분쟁지역으로 대만인도 진먼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대표적 분쟁지역이다. 그러나, 푸젠성의 샤먼 경제특구와 대만기업투자구에 대한 대만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는 등 정치적 긴장 완화와 함께 대만과 중국간 경제적 협력관계가 밀접해 지고, 미사일 개발로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도가 저하되면서 진먼섬에 주둔하던 대만 병력이 10만에서 1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황해도 연계협력에 위한 기초연구

동북아·물류연구실 강승호 연구위원

인천·황해도 연계협력에 위한 기초연구

■ 연구의 개요

-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의 초경계적(trans-boarder) 연계협력 전략수립이 필요함.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공간차원에서 다루는 국토개발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접경지역 활용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로 당분간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적 지원 등의 최소한의 사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 과거 금강산 관광 지구, 참여정부시 착수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 강원도 등 남측 지자체의 연계정책 구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현재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문제, 권력승계에 따른 체제문제 등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동북아 차원의 안보문제, 남북 간 정전체제의 문제 등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세계적으로 접경지역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은 분단국의 통일, 인접 분쟁국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노력으로 파악되며, 이는 장기적이고 지역적인 시각이 요구됨.
 - 특히 인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북한과 연계한 지역발전 요구사항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제시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개성공단 사업에 치중하여 사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인 황해도지역, 특히 황해남도도 시각을 넓힘으로서 다양한 지역과의 연계 구상이 필요함.
 - 인천은 정전협상 이전 황해도 지역이었던 서해 5도를 포함하고 있고, 황해문화권에 속했던 교동도 등의 강화지역이 있음. 이들 지역도 대북한 협력에 있어서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황해도와의 관계에서 상호 지역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호 연계한 발전과제와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인천항,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의 대북한 연계협력방안 이외에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하는 웅진과 한강하구를 낀 강화의 연계협력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인천의 서해접경지역을 백령·대청면, 연평면, 강화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북한의 접경지역의 경우 인천과 근접한 황해남도, 해주시 등으로 제한하여 기초적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음

■ 접경개발협력의 해외사례

- 서해 연안의 접경지역 간 협력과제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접경협력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음.
 - 해상물 두고 벌어진 분쟁 및 갈등을 평화공원지정을 통해 완화한 흥해 해양평화공원사례, 합작수산업회사 설립한 사례 등을 통하여 서해평화수역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이 존재함.
- '예멘-에리트레아 간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사례는 향후 남북한 공동어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있어 남북한 간의 이익분배 방식, 어업방식, 판매방식 등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해협을 건너는 외레순 대교는 깊이가 저명한 말뚝과 취업기회가 많은 코펜하겐을 오가는 근로자 통행을 증가시켜 외레순지역을 국제산업클러스터 초광역적 협력지역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 인천이 구상하는 강화~개풍, 강화~해주, 나아가 개성~강화(인천)~해주라는 초광역적 접경협력지대에 적합한 사례임.
- 접경지역간 국지적인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분리관리의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만과 중국사이의 접경연계협력에 있어서 중국은 적극적이며 대만은 소극적임. 중국은 경제통합을 위해서 대만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것임.
 - 대만의 경우 대륙의 자본, 노동력 등의 대만 유입을 대륙에 인근한 마주도 로 제한하여 원하는 대만 기업만 특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경제력 격차가 클 경우 노동력 요소의 자유이동은 소득과 취업기회가 높은 측이 손실을 보게 됨. 이는 독일

오버프랑켄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음.

- 한반도의 상황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남북 간 육상통행이 가능함. 그러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노동자가 남한에서 일을 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가급적 북한 주민의 분리관리 및 통제가 용이한 해상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과 황해남도의 지역별 현황 및 협력 현안

○ 인천과 황해도 간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접경협력은 비무장지대(DMZ)라는 절충지역을 통한 육상의 접경지역과는 다른 지리적 여건이 고려되어야함.

- 해상에서의 접경지역은 군사적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음.

○ 인천과 황해남도의 각각 지역별 현황과 협력 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음.

- 인천의 접경지역의 대북 협력 수요는 서해 5도 백령·대청권과 연평권의 경우 해상 어업구역의 평화수역화가 가장 큰 과제임.

- 평화수역화에 있어서 양 지역의 공통적인 방식은 북측 서해연안지역과 공동 어로구역을 조사·설정하는 것이며, 백령도의 경우는 이에서 더 나아가 해양의 회귀 생태계를 보호하는 해양평화생태공원 조성도 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음. 강화와 한강하구권역의 경우에는 보전보다는 이용 및 개발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개성공단 사업방식의 남북경제협력에 계도에 오르거나 해주시로의 산업단지가 확대될 경우, 강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황해남도의 대남협력여건

○ 황해남도는 북한면적의 6.9%, 인구 9.9%로 규모가 크지 않은 행정구역

- 신천-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으로 인하여 북한 전체 식량의 30~40%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산업도 활발한 지역임.

- 따라서 식량자급이 절실한 현재의 북한 사정을 고려시에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술교류 등의 수요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것이 예상됨.

○ 황해도는 북한에서 농업과 수산업 1차 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

- 지역자원을 위주로 보면 협력 니즈는 해양수산물과 농업 등이지만, 경제적 니즈는 역시 공업화일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 해양수산물과 공업 등 전 분야에서 인천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 황해남도는 향후 남북이 산업위주의 경제협력을 하기위한 좋은 조건으로 볼 수 있음.

- 황해남도는 공업화의 진전이 느림. 현재 해주와 황해남도 지역에는 시멘트공장과 비료공장을 제외하면 큰 공장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황해남도의 공업화가 부족한 단점은 향후 공업화 여지가 큰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특히 풍부한 농수산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및 가공공업위주의 공업화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해주경제특구가 설치된다면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황해도 경제, 북한경제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됨.

■ 인천과 황해 연계협력 방안

○ 인천과 황해남도는 산업경제구조상 보완성을 지녀 협력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접경 연계협력은 남측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과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장기적인 연계협력 전망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 하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위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2007년 10.4선언의 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을 보완해 나가는 것임. 서해평화협력 구상은 ①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②해주항 개발 및 경제특구 건설, ③한강하구개발, ④해주 직항로 통과 등의 세부 내용으로 구분됨.

○ 인천의 경우 군사상 민감해 보이지 않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이나 해주 직항로 통과 등의 의미를 고려하여야함.

- 서해의 남북한 간 논란이 되는 주제인 해상북방한계선(NLL)을 우회하여 남북 공동의 군사적 후퇴와 평화수역으로 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임.

- 따라서 서해문제의 피해자인 인천의 입장에서는 서해평화구상의 일부 내용이라도 남북 간에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차기 국정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서해평화특별지대 구상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와 배치되지 않으며, 인천의 입장에서 이를 보완하는 협력 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 백령도의 서해평화생태공원화 구상, 강화도의 역개성공단 개념의 남북교류협력단지 등이 있을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는 없음. 장기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려면 황해남도, 해주시와의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조사 및 협의가 필수적임.

- 현재는 곤란하지만 다음 남북관계 재개 시에는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황해남도, 해주시와의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기간제 가 접경협력으로 인천지역사회의

글로벌 단거근 거시계인 남동남극을 선도하기위함.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의 초경계적(trans-boarder) 연계협력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공간차원에서 다루는 국토개발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접경지역 활용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나호 보기

2011년 2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북한교역 현황

■ 남북한 교역액 추이

- 남북한의 교역액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취한 2008년 12월 이후 매월 감소하여 2009년 1~6월의 월별 교역액은 1억 2천만 달러를 밑돌았음
- 이후 북한이 2009년 8월 21일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국내 경기가 회복추세에 접어들면서 월별 교역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9년 12월에는 교역규모가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도 3월 천안함피폭과 '5.24 조치' 이후 남북간 교역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음

〈표 1〉 남북한 교역액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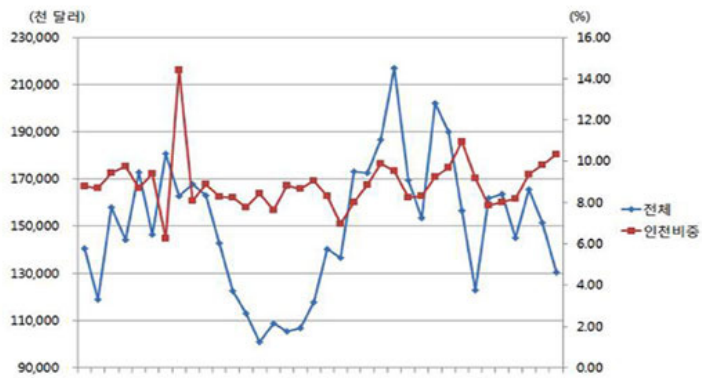
구분	남북한 교역액			인천의 북한교역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140,504	113,020	169,380	12,362	8,766	13,961
2월	118,885	100,863	153,495	10,354	8,508	12,757
3월	157,897	108,745	201,997	14,878	8,317	18,657
4월	144,248	105,564	189,981	14,077	9,327	18,401
5월	172,724	106,831	156,526	15,045	9,276	17,147
6월	146,538	117,739	122,752	13,762	10,652	11,260
7월	180,749	140,258	161,944	11,298	11,677	12,760
8월	162,766	136,639	163,599	23,463	9,527	13,122
9월	167,821	173,200	144,925	13,574	13,918	11,877
10월	163,064	172,615	165,599	14,507	15,318	15,522
11월	142,714	186,525	151,482	11,833	18,437	14,882
12월	122,456	217,082	130,570	10,092	20,707	13,499

자료: 통일부(2010); 한국무역협회

■ 인천광역시의 북한 교역액 추이

- 인천시의 북한교역액은 2008년 8월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남북 전체 교역액은 감소한 반면, 인천의 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남북교역 대비 인천의 비중이 14.4%로 2008년부터 2010년의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증가세는 2010년 '5.24 조치'를 계기로 반입량의 감소로 인하여 교역량이 줄어들었음.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인천의 교역비중은 2008년 9.08%에서 2009년 8.6%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9.09%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인천의 대북교역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1〉 남북교역과 인천의 비중(월별)



■ 해상 및 항공운송 현황

(1) 해상운송

- 2009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577회로 2008년 대비 65.3%가 감소
- 우리측 선박은 해주-고성 등지의 바다모래와 수산물 반입 감소로 2008년보다 71.5%가 감소한 2,044회를 운항하였음
- 북한 선박은 주로 수산물 수송 증가 및 2009년 5월부터 인천-남포 간 정기화물선(동남1호)이 투입되면서 2008년보다 109.8%가 증가한 533회를 운항하였음
- 2010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1,432회였다. 한편 2010년도 5월 24일에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음

〈표 2〉 남북 선박운항 현황(편도기준, 분기별 집계)

(단위: 회, 만톤)

구 분		'9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운항 횟수	전체	7158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49,364
	제주 해협*	-	-	-	-	42	122	178	191	245	88	866
물동량	전체	460	109	105	111	680	1,631	2,511	1,506	191	106	7,410
	인천항	-	13	15	47	566	1,338	2,089	1,330	144	79	5,621
	비중	-	11.9	14.3	42.3	83.2	82.0	83.2	88.3	75.4	74.5	75.9

자료: 통일부, 한국무역협회

- 인천의 항로를 포함한 남북 간 운항선박에 있어서 정기항로는 2개사 3척이 운항 중이며, 부정기항로에는 무연탄, 아연과 등 고류물자 및 바다모래 운송선박 36척이 운항 중임

〈표 3〉 남북간 운항선박 현황

항 로	선 사	선 명	선 격	총톤수	적재능력 (TEU)	항로개설	운항횟수
부산/나진	개선총회사	사향산호('98년건조)	북 한	2,506	194	'07.5.20	월3회
인천/남포	국양해운	트레이드포춘호	파나마	2,684	253	'98.8	월4회
인천/남포	개선총회사	동남1호('85년건조)	북 한	3,232	96	'09.5.6	월4회

* 동양해운 부산/나진('95.10~'09.3.31, 추심호, 2,283톤, 100TEU), 사향산호 '09.11 운항 개시
자료: 국토해양부

(2) 항공운송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서해를 우회하는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
- 2009년에는 당국간 회담 및 민간 방북행사가 중단되면서 남북간 항공기 운항도 2008년 대비 82.8% 감소한 11회를 기록
- 2009년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경유 방한,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북한 조문단 방남 및 보즈워스(Stephen Warre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정부 대표단 방북을 위한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짐
- 2010년 중에는 남북관계 상황 악화에 따라 민간 방북행사 등이 전무하여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음

〈표 4〉 남북 항공기 왕래 현황(편도기준, 분기별 집계)

(단위: 회, 만톤)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항공기 (운항회수)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793
항공기 (수송인원)	1,873	1,365	4,814	7,512	1,576	22,722	3,170	7,515	3,746	46	-	54,339

자료: 통일부

〈참고문헌〉

통일부(2010), 통일백서 201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안내센터, 남북교류협력 동향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남북한의 교역액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취한 2008년 12월 이후 매월 감소하여 2009년 1~6월의 월별 교역액은 1억 2천만 달러를 밑돌았다. 이후 북

한이 2009년 8월 21일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국내 경기가 회복추세에 접어들면서 월별 교역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9년 12월에는 교역규모가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